

16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전망

‘핵우산 명문화’ 北 압박수위 높일 듯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는 15~17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첫 정상 방문을 통한 공식 만남이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양자회담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북한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이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더욱 강화 ‘미래비전 선언’ 가능성

북핵 공조·한-미 FTA 비준 등도 입장 정리

이 대통령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보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협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정과 평

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 문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 강도높게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언론발표문 등의 형태로 미국의 ‘대(對)한국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에서 제

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 유통, 미국 여기자 역류, 현대아산 직원 역류, 개성공단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방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비롯해 양국간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적막한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전면 철수를 결정한 업체가 나온 가운데 9일 오전 파주 도리산 남북출입사무소(CIC) 도로 출격 계이 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2년 집권’ 붕고 가봉 대통령 사망

세계 최장기 집권자인 오마르 붕고 <사진> 가봉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스페인 병원에서 사망했다. 향년 73세.

장 아예게 은동 가봉 총리는 이날 바르셀로나의 퀴론병원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붕고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은동 총리는 “붕고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30분께 심장발작으로 서거했다고 의료진이 본인인 가족들에게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붕고 대통령은 지난 1967년 11월



부통령 재직 중 레온 음바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42년에 걸친 장기 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집권 도중 쿠데타 미수사건과 반정부 유혈시위 등의 정치적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군림해 왔다. /연합뉴스

“北 ICBM 발사 16일前 힘들 것”

정부 北 3개기업 금융제재

동해선 단거리미사일 발사 징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기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부 핵심당국자가 9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칠산군 동창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뒤 인근 건물에서 미사일 조립,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아직 발사대에 미사일을 설치하지는 않은 상

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사일 연료가 고체가 아닌 액체이기 때문에 발사대에 설치한 뒤 주입을 해야 하고, 폭발위험성도 일반 연료에 비해 높다”면서 “따라서 설치와 연료 주입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동해의 경우 북한이 선박 항해금지 구역을 선포한 만큼 오늘이라도 단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발사준비 징후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안보리 결정 따라 이달초부터

정부가 북한 기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금융 제재를 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부터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5월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제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조선농부총회사(Korea Ryongbong General Corporation)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을 동결된다.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평생 직업?

리비아 카다피 41년째 통치

예멘 살레 39년째 권좌 유지

한 세상을 호령하던 세계의 장기집권자들이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쿠바를 49년간 통치해온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해 2월 국가평의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최장기 집권자로 군림해온 오마르 붕고 가봉 대통령이 8일 사망함으로써 마침내 42년간 움켜쥐고 있던 권력의 끈을 놓게 된 것.

그러나 지구상에는 여전히 군주

가 아니면서도 종신 대통령이라도 한 듯 기한없는 집권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67)=붕고 대통령의 사망으로 현역 최장기 집권 타이틀을 넘겨받게 됐다. 1969년 육군 대위 시절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41년째 리비아를 통치하고 있다.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

레(67)=1978년 쿠데타를 통해 북예멘 정권을 장악한 뒤 1990년 남예멘을 흡수 통일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39년째 권좌를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81)=1981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되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 2005년 5선에 성공, 28년째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 www.kimyoung.co.kr

2010년 수험생지수권자의 관망대학을 계속하라!

대학편입 설명회 일시: 6월 19일(토) 14시

장주병원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정동서 40] 전화: 227-6088

대학편입이란? 상위권대학편입(예전 TOP-CLASS) 자전적 편입을 위한 권당수학 개설

전문의 수명교가지기 UP 블루다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본시점 방수방수 전문시공

www.ipal.com

전화: (062) 511-0444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권 89,000원

목적 여행: 89,000원

목적 여행: 89,000원

목적 여행: 124,000원

목적 여행: 128,000원

목적 여행: 100,000원

전화: 064-744-1109